

소중한 것의 가치를 알아가는 행복한 발걸음

- 사회적기업 (주)코끼리별꽃 -

충남사회적경제 도민기자단

김진경

자연은 스스로를 정화하는 힘이 있다.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자연은 자정(自淨)의 힘으로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인간들을 오히려 보호해왔던 것은 아닐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봐야 할 것에 대해 알아가려는 노력이 시급한 때다. 정말 소중한 것의 ‘가치’에 대해 같이 생각해보고, 같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 힘쓰고 있는 사회적 기업 코끼리별꽃(대표 : 최민경, 이하 별꽃)을 만났다.

별꽃은 환경 교육을 하고,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 그것으로 중요한 것에 대한 시선과 가치를 같이 생각해보기 위해 일하는 기업으로, 올해 4월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별꽃의 소셜 미션은 ‘가치를 아는 시선, 행복한 삶 만들기’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최민경 대표와 이야기 나눠 보았다.

더불어 행복한 삶이라는 가치

‘가치를 아는 시선, 행복한 삶 만들기’라는 소셜 미션 안에는 ‘환경’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있다. 하지만 환경 문제를 넘어서서 어떤 대상이나 일에서도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그런 ‘가치’를 눈에 담아봤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움직임들이 모이면 모두와 같이 더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고안해낸 소셜 미션이라고 한다.

그리고 인간들이 자연을 지배의 대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 인간은 결국 자연이 있기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그러한 노력에 참여하는 발걸음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대표는 기업의 비전에 관해 설명하며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하는 여러 일을 계속 보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안내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행동은 교육으로부터

별꽃의 사업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분야는 환경 교육이다. 천안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과 미술, 공예 교육 등을 하고 있는데 교육을 받으려면 별꽃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별꽃에서 일정을 조율해 별꽃 사무실로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 유치원, 지역아

동센터 등의 단체나 소외 계층의 경우, 별꽃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봉사활동을 한다고 한다. 기관 같은 경우는 대개 일 년에 한 번 정도 방문 수업을 한다고. 별꽃 사무실이 올해 말 이전 예정이라 사무실로 방문하는 수업은 현재 잠정 중단 중이며, 이전 완료 후 재개 된다.

앞으로는 어린이 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계획하고 있는데, 성인 교육에 앞으로 많은 공을 들일 계획이라고 한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 모습(사진 제공 : 코끼리별꽃)

디자인 하나도 더 환경적으로

교육 외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환경 교육 후 제작된 그림이나 자료들을 제품화하는 것이다. 직원들이 모두 미술 전공자들이다 보니 회사의 수익 활동 중에는 디자인 작업 비중이 크다고. 아직 확실하게 환경이라는 키워드가 자신들에게도 완전히 자리 잡히지 않았던 때는 디자인을 해서 돈을 좇게 되면 정작 이야기하려는 방향이 안 보이고, 디자인 회사로 밖에 안 보일 것 같아서 아예 일을 받지 않았던 때도 있다고 한다. 그러다가 리무브(Remove) 디자인을 하게 됐다.

“디자인 의뢰를 받으면 저희에게 맡긴 광고물(현수막 등등) 등을 작업해 드리고, 최대한 환경에 도움이 되는 종이, 잉크 등을 안내해 드려요. 그리고 적절한 부수를 제작하실 것을 권유하고, 제작품이 나오면 사용 후에 남는 것들을 저희한테 달라고 말씀드려요. 현수막

같은 것들은 가져와서 모아 놔다가 환경 교육 키트를 만들어서 행사 시 배부하고, 무료 교육할 때 쓰기도 해요.” 하며 리무브 디자인을 설명했다. 업사이클링의 개념의 비즈니스 모델 하나를 더 찾게 된 것이다. 최 대표는 디자인 하나에도 업사이클링, 환경을 생각하면서 작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코스트코, 샤넬과 함께 환경 해요!

별꽃은 여러 기업과의 B2B를 통해 그 영향력을 더욱 넓혀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코스트코(진행 완료)와 샤넬(올해 11, 12월 진행 예정)이다. 기업들도 이제는 기업 운영에 사회공헌 활동이 필수가 되어 진행 방향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한다. 별꽃은 이런 기업들을 만나 어떤 방향의 사회공헌을 진행할 것인지 고민한 후 제안한다. 고민이 끝나면 먼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을 한 후, 지역아동센터, 기업의 임직원, 직원 자녀들 등과 같이 협업해 환경 교육을 받은 후 별꽃의 업사이클링 키트를 기업으로 보낸다. 키트로 만든 제품들은 지역아동센터나 지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쓰임이 될 수 있는 것들로 선별해 선물로 기부하는 형식으로 사용한다.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참여자들의 관심도 높았고, 반응도 좋았다. 이런 활동들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최 대표는 교육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설레는 마음이 된단다.



휴브릿지 활동(사진 제공 : 코끼리별꽃)

나눔과 실천

가장 기억에 남고, 현재도 진행 중인 것은 바로 ‘휴브릿지 주간보호센터(발달장애인 보호센터)’에서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그림에 소질이 있고 관심 있는 작가들을 발굴해 이분들에게 별도의 그림 지도를 한 후, 지도했던 그림들이 전시회로 연결이 되었다. 여기에 전시됐던 작품들이 판매돼서, 현재는 작가들이 취업하기도 했다. 별꽃의 작은 재능 나눔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2018, 2019년에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6개월 정도 환경 교육을 했다고 한다. 교육 후 작은 업사이클링 페스티벌과 전시회도 열었는데, 이때의 경험이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첫 시도이기도 했고, 이 과정에 대해 천안시와 학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다고 한다. 공부하는 건 줄 알고 엄마 따라 억지로 와서 잔뜩 찡그리고 있던 표정의 아이들이 수업 후에는 환경 문제가 정말 큰 걱정이고, 관심이 간다고 하며 인식이 변화된 모습을 볼 때 보람과 기쁨이 너무 커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쓰레기를 다시 디자인하다

별꽃에서는 ‘두에코’라는 브랜드를 운영한다. 현재는 카드지갑과 키링을 직접 제작해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직원들 모두 제품 디자인,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 함께 의견을 나눈 후 진행한다. 카드지갑, 키링은 모두 직접 제작하고, 조만간 가방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공병을 활용한 두에코 디퓨저(사진 제공 : 코끼리별꽃)

두에코 제품은 백화점, 대형 쇼핑몰 등에 팝업 스토어를 열어 오프라인 판매도 함께한다.(두에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 <https://smartstore.naver.com/doeco>)

제품 판매에서 얻은 큰 깨달음

올해 최 대표가 그간 열심히 옮기던 발걸음을 잠시 주춤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 이유는 몇 년 동안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과 판매에 노력을 많이 들였는데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직도 우리나라의 업사이클링 제품의 값어치는 그냥 쓰레기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느껴져 속상한 마음이 무척 컸단다.



비닐을 활용한 카드지갑과 키링(사진 제공 : 코끼리별꽃)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 업사이클링 제품을 소개하면 좋은 반응보다는 “쓰레기로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비싸요?”하는 반응이 많았다고. 주얼리는 가격이 보통 만원 대였고, 비싸면 이만 원대였다. 하나하나 다 손으로 만들고,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인데도 “왜 이렇게 비싸요? 쓰레기인데.” 이런 얘기들을 듣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게 먼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변화의 폭이 큰 성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했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며 느끼는 따뜻함

최 대표의 원래 직업은 대학 강사. 하지만 원래부터 사회적 기업이 너무 하고 싶어서 사회적 기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던 끝에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접목해 비즈니스 모델 찾았다.

이 일을 시작하고 좋았던 것은 사람들을 만나며 느끼게 되는 온기다. 해결하려는 사회적 미션은 각각 다 다르지만,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항상 주변 분들이 다 따뜻하더라는 것이다. 혹시 어려운 점이 생겨서 손을 내밀었을 때 내치시는 분들이 없었던 것, 별꽃이 운영상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분들의 도움 덕분이었다고 한다.

적어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안에서의 사람들은 서로 배척하고 경쟁하는 구도 보다는 ‘같이 함께 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있어야 하고, 사회적 경제라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런 경험들 덕분에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설레는 이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과 다르게 사회적인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수익 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국가나 기업, 기관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익도 얻는 기업이다. 최 대표는 바로 이것이 어느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돈도 벌지만 내가 문제화했고, 사회의 변화를 조금씩 만들어내는 주체자라는 생각을 하면, 이것보다 더 설레는 일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사회적 기업이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변화돼야 할 것들이 아직은 많지만 사회적 기업은 어쨌든 설레고 값진,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도, 너도, 우리 모두 다 같이 잘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코끼리별꽃의 다음 계단

별꽃은 올해 연말까지는 환경 교육에 관련된 책을 낼 계획으로 현재는 기획 단계 있다고 한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업사이클링 책이라든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에 관한 이야기, 지구 이야기 등을 책으로 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중장기 사업으로 보고 진행하고 있단다. 이미 첫 삽은 떴고,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정도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최 대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아이템들을 조금 더 많이 개발하려고 한다고 했다. “성인분들이 저희한테 배워서 또 다른 분들께 전파할 수 있는 교육안, 교육계획, 커리큘럼을 좀 많이 좀 짜보려고 하고 있어요. 재미난 수업으로 진행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기대해주세요.”라며 성인 대상 환경 교육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하고, 고민거리를 같이 얘기하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환경 관련된 동아리나 동호회를 만들고 싶다고 한다. 지역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 그것으로 책으로 내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췁코끼리별꽃 직원들(사진 제공 : 코끼리별꽃)

To.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을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는 이미 열 번은 없어지고도 남았을 기업입니다. 지나온 과정이 험난했고, 고난들이 무척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많은 기업이 있었기에 코끼리별꽃이 없어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어요. 정신적으로나, 다른 여러 부분에서 정말 여러 기업 분들께 다양하고 따뜻한 조언을 얻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사회적 기업가는 정말 친한 친구같이 편하게 ‘사회적 기업 하세요?’ 그러면 스스럼없이 연락이 가능한 그런, 친구 같은 관계라고 생각해요. 이 글을 보시는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께 **“언제나 편하게 연락주세요, 친구같이 지내요.”**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끼리별꽃의 최민경 대표와 인터뷰를 하면서 ‘참 아름다운 기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환경과 자연, 같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가치를 알고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고, 코끼리별꽃이 세상에 내놓는 결과물이 그랬다. 앞으로 책과 교육, 모임을 통해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더 널리 전해지기를 바란다.